

양칼지게 싸워라, 가족의 온기란

산문집 《식구: 우리가 사랑하는 이상한 사람들》낸 소설가 김별아

전투의 열기에서 생겨나는 것

“가족만큼 따뜻한 품 없다”는 가족 불변의 의미를 두고 소설가 김별아(37) 씨는 슬그머니 탄축을 건다. “우리가 사랑하는 이상한 사람들”을 가족이라 이르지 않겠는가. 꼼꼼 따져보자면 그것만큼 정확한 비유도 없다. “누구에게도 보인 적 없는 적의와 증오의 시선으로 서로를 노려보며 이빨을 드러낸 짐승처럼 으르렁댄 일은 없는지. 함께 밥을 나눠 먹고 같은 지붕 아래 잠 들지만 좋아하는 연예인의 프로필이나 스케줄만큼도 그들의 근황에 대해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폭력과 소외, 갈등과 고통에 시달리는 상대에 대한 걱정보다는 행여 이 사실이 밖으로 새어 나갈까 두려워 대문과 창문을 꼭꼭 걸어잠그지는 않았는지.”

김씨는 신작 산문집 《식구: 우리가 사랑하는 이상한 사람들》에서 가족 본연의 실체를 그처럼 거침없이 까발린다. 이견異見의 여지없다. 우리 모두는 그렇게 살고 있었으면서 “가족만큼 따뜻한 품 없다”는 낭만을 오로지 말해 왔다.

“원고 집필 이전, 가족과 관련한 책을 모조리 찾아 읽었습니다. 저자 모두가 가족을 제1의 가치로 두면서도 정작 가족이 갖고 있는 문제, 오래도록 굶은 그 환부는 건드리지 않더군요. 가족의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 밝혀보고 싶었습니다. 가족에 대해 가장 할 말 많은 3,40대 작가들이 입 다물고 있는 사실도 의아했지요.”

산문집 《식구: 우리가 사랑하는 이상한 사람들》은 몇 편의 원고를 제외하고는 전작으로 써어졌다. 적당한 지면에 연재를 해도 좋을 법한 주제였지만, 원고의 밀도를 높이기 위해 김씨는 집중적으로

집필에 매달렸다. 가족 구성원간의 꼼꼼한 문제 진단, 가족의 문제를 바라보는 특유의 시니컬한 시선이 흐트러지지 않는 까닭이 그것에 있다.

김씨가 가족에 대해 주목하는 특별한 부분은 ‘가족’과 ‘나’와의 관계다. 가족은 나에게 구원인가, 상처인가, 이도 저도 아니면 대체 무엇인가. 김씨는 이런 물음에 “가족은 단순한 구원처가 아니며, 그렇다고 모든 상처의 진원지도 아니다”는 대답을 내놓는다.

“많은 사람들이 가족 때문에 상처를 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처가 있다고 해서 두려워할 것은 없지요. 갈등이 표면화된다는 것은 행복을 위한 시도가 늘어나는 것에 다름 아니지요. 상처를 숨기며 ‘구원의 가족’만을 말하다보니 ‘상처의 가족’에 대한 치유를 놓치는 것이죠. 가족의 해체를 말하는 이 순간에도 가족은 끊임없이 생겨납니다. 가족을 유지하는 데만 신경 쓸 것이 아니라, 문제가 무엇인지, 치유는 어떠한지 따져보아야 합니다.”

‘상처의 가족’을 치유하는 김씨의 방법론 역시 화끈하다. 김씨는 “가족이란 결국 나를 닮은 타인일 뿐”이라고 다시 한번 과감히 발언한다. 자기 내면에도 갈등이 분분한데 타인과의 관계에서 어찌 갈등이 없겠는가. 김씨는 그 사실을 인지하고 끊임없이 부딪치라고 권고한다. 가족을 위한 희생은 전근대적인 것, 부모가 생선의 머리를 먹는다고 존경받는 세상은 아니며, 자녀가 그것을 알아주지 않을 때 희생은 어떤 고결함도 갖지 못한다. 양양불락, 갈등만이 머리를 쳐들 뿐이다.

《식구: 우리가 사랑하는 이상한 사람들》은 이



《식구 : 우리가 사랑하는 이상한 사람들》
 김별아 지음 | 베텔스만 | 248쪽 | 값 8,800원



처럼 과격적인, 그러나 가장 사실적인 가족의 모습을 낱낱이 밝혀 내놓는다. “그 날의 콩나물 무침과 설익은 밥은 ‘불화’의 증거였고, 더 이상 밥을 먹을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본능적인 ‘공포’를 느꼈던 가족간의 솔직한 식사를 말하는가 하면, “멀리서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가까이 있으면 화가 난다”는 것이 어머니와 딸의 관계라고 말한다. 책을 읽고 있으면, ‘상처의 가족’을 외면하고 있었다는 부끄러움과 함께, 김씨 특유의 시니컬한 시선이 가족 복원을 바라는 가장 따뜻한 인상이라는 데 공감할 하게 된다.

가족을 줄곧 말하고 있지만, 김씨 산문집의 제목은 ‘식구’다. 김씨가 가족을 두고 식구를 표지에도 딱 하니 박아둔 이유는 무엇일까. 식구란 밥상공동체라는 것에 다름 아닌데, 미래의 가족상에 대해 생각하다보니 식구라는 단어가 마음에 들더라고 김씨는 설명한다. 혈연공동체가 아닌 밥상공동체, 곧 밥을 같이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의 집단이 가족이라는 것. 김씨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가족의 모습은 그것이다.

“영화 <집으로...>와 <아이 엠 샘>에는 온전한 가족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현실에서 손가락질받는 비정상적 가족이지만 그들만큼 행복한 가족도 없지요. 가족 붕괴와 해체의 책임을 ‘비정상적 가족’에게 돌리며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당신의 가족은 행복하냐 묻고 싶습니다. 그들 가족이 행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지해 주어야 합니다. 부딪쳐 갈등을 줄이며 살아가는 그들이야말로 진짜 가족이지요.”

가족을 말하는 산문집인데 내내 시니컬하다면 문제 있지 않겠느냐, 염려하는 독자들을 위한 감

동도 있다. 산문집의 에필로그에서 김씨는 코끝이 시큰한 ‘비장의 문장’을 꺼내놓는다. “결혼을 하기도 의지에 의해 자식을 낳지 않거나 부득이하게 자식을 갖지 못하는 부부들이 타인에 의해 행복을 저울질당하지 않고, 스스로 희생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기를. 핏줄로 이어지지 않아도 누구보다 든든한 부모, 다정한 형제, 소중한 자식이 될 수 있는 공생과 박애의 등지가 많이 많이 생겨나주기를.(...) 나는 간절히, 그 헛되고도 지극히 아름다운 꿈을 꾸어보고 싶다” 그리하여 《식구 : 우리가 사랑하는 이상한 사람들》은 “가족만큼 따뜻한 품 없다”는 가족 불변의 법칙을 가장 독특하게 완성시킨다.

한편 김씨는 가족을 말하는 데만 ‘선수’가 아니다. 《축구전쟁》이라는 독특한 소설로 세간의 화제가 된 바 있듯, 김씨는 축구논평에도 일가견을 갖고 있다. 2006년 월드컵과 관련한 한국 축구팀의 전망을 묻는 질문에 김씨는 조 편성이 좋아 본선진출은 무난할 것이라는 대답과 함께 축구협회 저간의 사정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을 곁들인다. 축구에 대한 찼한 애정이 비판을 동반하듯, 가족에 대한 찼한 애정이 가족 이면의 상처를 바라보게 했을 테다. 김씨는 우리에게 전한다. 사랑한다면 숨은 상처를 깎집어내 치유를 도와야 한다고,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가족은 그렇게 사랑하며 살아야 한다고. **한주**

취재 | 박용두 기자 · 사진 | 박신우 기자